

可쁘다

: 믿음성이 있다

순우리말 '미쁘다'는 믿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자주 쓰이지 않지만 그 뜻과 발음이예뻐 상점이나 브랜드의 이름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 사이에도, 가족 간에도 믿음은오랜시간에 걸쳐 쌓아온 관계에서 비롯되는 마음일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일을 하는 기이코노미(Gig Economy)가 확산하고 SNS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요즘, 관계의 중심에는 믿음보다효율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누군가의 용기 있는행동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먼저 갖게 되는 것이 씁쓸한 현실입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아닌 상대방과의 상호작용과 여러 경험을 통해 발현됩니다. 매일 실천하는 작은 행동과 꾸준한 신뢰가쌓여, 누군가에게 미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 봅니다.



2024 September Vol.223

Contents

통권 223호

발행일 2024년 9월 2일

발행처 국가보훈부

발행인 강정애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기획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일자리과(044-202-5731)

기획·디자인·인쇄 동아문화사(053-252-9060)

발간등록번호 11-1830000-000002-06

- f www.facebook.com/mpvakorea
- www.youtube.com/user/mpvakorea
- www.instagram.com/bohun_story
- X.com/hun2day
 - blog.naver.com/mpvalove



QR코드를 통해 <리;스펙 제대군인> 웹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리;스펙 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Again my Life

새 삶의 시작을 응원

미쁘다

: 믿음성이 있다

○○ 매치포인트

오래도록 고객에게 미쁘게 사랑받는 기업의 이야기 매일유업 & 유한킴벌리

*한재동 작가 겸 칼럼니스트

○○ 리:스펙 히어로

35년간 군에서 갈고 닦은 역량, 사회에서 빛을 발하다 *이상웅 예비역 육군 준위

우리 동네 철도건널목의 안전을 지키는 친절한 아저씨 *권영우 예비역 해군 준위

[굿JOB굿LIFE

치밀하게 준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도전하라 *박경진 예비역 육군 중령

Change Work

M2의 업을 찾는 방법

지속 가능한 미래로

동북아시아 최대 물류 거점인 부산항 약진의 숨은 주역 *부산항인력관리주식회사(PRS)

○○ 성공 길라잡이

제대군인 전직지원 위한 기업협력

74 **Zoom IN**

넘치는 짐은 미니창고로!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세컨신드롬

○ 당구석 1열 오피스

드라마 <닥터탐정>으로 알아보는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 꿀팁전당포

마음을 뒤흔들 단 한 문장을 찾아서… *책 리뷰 유튜브 추천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다 *소리꾼 & 싱어송라이터



Better Live 라

즐거움이 있는 삶

주 여행 보일지도

멋에 겨운 천안 삼거리의 가을, *충남 천안

'나다움', 왜 나에게는 이토록 어려울까 *최은영 Live Stories 대표

⟨○ 전국군대자랑

과업은 선임이! 포상은 후임에게! *임진혁 예비역 육군 소령

스 오늘도 ESG

매연 뿜는 자동차와는 잠시 안녕 *9월 22일 세계 차 없는 날

42 다함께 PLAY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 타임 추석 명절에 읽기 좋은 추천 도서



Maeil & Yuhan kimberly

오래도록 고객에게 미쁘게 사랑받는

기업의 이야기

매일유업 & 유한킨벜리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이지만,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이벤트 형식의 사회공헌이 아니라 오랜 기간 사회에 헌신해 온 기업들은 고객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죠. 오늘은 대한민국에 꾸준히 사회적 공헌을 해오며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기업, 매일유업과 유한킴벌리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글 **한재동** 작가 겸 칼럼니스트

낙농보국, 낙농업으로 국가를 풍요롭게 하겠다는 매일유업

매일유업의 시작은 낙농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와 민간이 합작한 '한국낙 농가공'입니다. 농어촌개발공사(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기업 자 본을 조달하고, 무역과 제분업으로 사업에 성공한 김복용 선대 회장이 1971년 민간 대주주 자격으로 경영을 시작했죠. 사업 초창기에는 소를 들여와 공장을 짓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비행기로 북미의 젖 소를 들여오는 데 성공하며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6개월 이상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테트라팩 포장 기술을 도입해서 그동안 우유를 접하기 힘들었던 도서지방까지 공급될 수 있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덕분에 우리나라의 우유 소비가 촉진될 수 있었습 니다. 초창기 한국 우유 시장의 성장을 견인한 매일유업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대규모 설비투자를 이어가며 국내 유제품 시장을 선도해요.

2008년 출시한 저지방 우유는 세계에서도 아직 태동기였던 저지방 우 유 시장을 선제적으로 공략하는 데 성공합니다. 저지방 우유는 맛이 싱겁 다는 편견을 깨며 출시 당시 4%에 불과한 저지방 우유 시장을 10년 뒤 에는 19%까지 확대하게 돼요. 저지방 우유 외에도 신선함을 더욱 강화 할 수 있는 신기술을 발명, 포장 패키지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이 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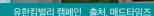
매일유업 _ 출처, 매일유업











그러다 2018년, 매일유업이 묵묵히 실천하던 사회적 공헌 이 알려져요. 바로 '특수 분유' 사업입니다. 특수 분유는 희 귀병인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을 앓는 유아들을 위한 제품 이지만, 생산하는 데 있어 매년 많은 금액의 손해가 발생해 요. 고 김복용 창업주는 1999년 한 대학병원에서 희귀병 을 앓는 아이를 만난 뒤 이 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시작했다. 고 합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 받아서는 안 된다."

창업주의 정신을 이어받은 매일유업은 2006년 선대 회장 이 작고한 뒤에도 특수 분유의 생산을 이어 나가 특수 분유 의 종류를 추가 개발하고, 희귀병 아이들과 가족을 위한 행 사도 열고 있어요. 사회적 공헌이 알려진 이후 매일유업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으며, 한국 우 유 업계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기업보다 더 유명한 캠페인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유한킴벌리

유한킴벌리는 생활용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화장지, 미용 티슈, 생리대, 기저귀 등이 있어 요. 유한킴벌리는 유한양행에서 시작됩니다. 유한양행은 1927년 독립운동가 유일한 박사가 만든 제약회사예요. 이 익을 사회에 화원하겠다는 뜻을 가졌던 유일한 박사는 실 제 1971년 세상을 떠나며 본인이 가진 40%에 달하는 유 한양행 주식을 모두 사회에 기부합니다. 현재 가치로 따지 면 약 2조 4000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유한킴벌리는 한국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유한양행 과 미국의 킴벌리클라크사가 합작한 회사입니다. 현재 많은 생활용품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품보 다 더 유명한 것이 바로 유한킴벌리의 사회공헌 캠페인 '우 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입니다.

1980년대 초 유한킴벌리는 숲을 만들기 위해 자금을 모으 기 시작합니다. 2년 동안 미용 티슈 매출의 1%를 따로 모 았다고 해요. 기업이 나라의 땅에 숲을 만든 전례가 없기 때 문에 정부를 설득하는 데 1년이라는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 리고 1985년 4월 충북 제천 백운면 화당리에 유한킴벌리 가 만든 첫 번째 숲이 조성돼요. 잣나무 1만 2천 그루의 숲 이었습니다.

매년 150만 그루씩 캠페인을 통해 나무가 심어지고 숲이 생깁니다. 심지어 유한킴벌리는 전례가 없는 사회공헌으로 사회공헌 비용 처리가 되지 않아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했 음에도 캠페인을 이어가요. 문민정부 시절이 되어서야 공익 활동으로 인정되어 면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캠페인이 시작 된 이래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바뀌었지만, 나무 심기는 계 속 이어지고 있어요.

기업들은 사회공헌을 하면 어떻게든 알리려고 애씁니다. 그 런데 유한킴벌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숲과 나무의 중요성 만을 알릴 뿐입니다. 하지만 40년 넘게 이어져 온 캠페인의 진심은 국민들에게 전해졌어요. 전 국민의 77%가 이 캠페 인에 대해 알고 있다는 조사 결과와 더불어, 유한킴벌리의 기업 이미지가 제품을 구매할 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는 소비자가 82%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사회적 공 헌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지 요. 😘

Again my Life 리

35년**간** 군에/개 갈고 닦은 역량,

사회에게 빗을 발하디

이상웅 예비역육군 꾼위



QR코드로 접속하면 인터뷰 내용을

군생활 35년 동안 한결같이 군대 내의 유·무선 통신장비를 운용하며 재해재난 및 유사시를 대비해서 효율적인 통신망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지금은 자신이 군에서 쌓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 지하철 역사를 오가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예비역 육군 준위 이상웅 씨를 만났다.

글 **양일석** 사진 **권진혁** 영상 **오철만**



Interview



○○ 내 전공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대도시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며 도시민의 안전한 이동을 책임지고 있는 지하철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사연을 안고 분주히 발걸음을 옮긴다. 사람들이 무리 지어 한 방향으로 몰려가다가 여러 방향으로 갈라지고, 또 다르게 무리지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다 보면 어린 시절 공원한 귀통이에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켜봤던 개미떼가 연상된다. 거대한 지하철 역사가 열차도착 시간에 맞춰 밀물과 썰물처럼 사람들로 채워졌다 비워졌다를 반복한다.

이 거대한 시스템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정보통신 설비를 담당하는 분야는 지하철 운행에 있어 더 전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 생각된다. 코레일테크(주) 곤지암통신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욱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저는 1987년 11월 21일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22년 12월 31일 준위로 전역하였습니다. 약 35년간 통신부대에 근무를 하면서 하사에서 상사까지는 통신소장 직책으로 유·무선 통신장비, 전 원장비 등의 운용 및 장애시 조치와 교육훈련, 병력관리를 주 업무로 실시하였습니다. 준위로 임관한 후에는 통신장비 교관 직책을 수행하면서 혼과 열정으로 야전과 연계된 실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특기병을 배출하였습니다. 참모 직책을 수행할 때에는 유·무선 통신망 생존성 보장을 위한 계획 및 낙뢰, 태풍, 폭우 등 재해재난 대비 효율적인 통신망 유지에 주력하였습니다.

경강선 곤지암통신사업소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업무는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점검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정상복구 능력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군(軍) 정보통신 업무와 유사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책상보다는 현장이 편안한 엔지니어

한 가지 일을 오래하다 보면 기술에 대한 숙련도는 높아지지만 일에 대한 매너리즘도 생기기 마련이다. 짧은 세월도 아니고 자그마치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신망 유지를 위해 바쳤으면 지금은 다른 일도 생각날 법한데 전역 후에도 다시 통신설비 유지 일을 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군대에서 정보통신 병과로 주어진 일을 할 때에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전역해서 처음에는 잠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를 만지는 일을 하다 보니 좀 어색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엔지니어다 보니 실제 장비를 들고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손상된 장비를 복구하는 일이 좋고, 보람도 느낍니다. 근무 여건은 3교대로 근무하는데 야간 업무를 할 때도 완전히 밤을 새는 것이 아니라 휴식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컨디션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하는 일이 마음이 편하고 제 천직인 것 같습니다."

○○● 사회에서도 쓰임새가 많은 정보통신 기술

군대에서 아무리 높은 전문지식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사회에 나오면 딱히 사용처를 찾지 못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오랜 기간 축적하고 숙련해온 전문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고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일을 배워나가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힘든 일이지만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다.

다행히 이상웅 씨가 익힌 기능은 현대사회의 첨단에 있는 정보통신과 연계된 기능이라 사회에 복 귀하고 나서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다. 그중에서 지하철의 통신망을 관리하는 코레일테크(주)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했다.







Interview

"정보통신 병과에서 근무를 하고 사회에 나오면 다행히도 다른 병과에 비해 직업 선택지가 많은 편입니다. CCTV 업체나 교통 관제하는 곳 등 영화나 TV에서 보면 화면 여러 개를 띄워 놓은 곳이 나오잖아요. 그런 곳은 다 저희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죠. 또 주변 지인들을 보면 건설회사의 감리로 취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찾던 중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의 소개로 코레일테크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집하고도 가까워서 공무직 사원 공개경쟁 채용 모집에 응시하여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자신을 믿고 현재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라

현대사회는 너무나도 복잡하게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기에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신이 가진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며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지금은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맡은 바 역할을 책임지고 있지만 곧 사회로 진출할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했다.

"정보통신 병과는 전역 후에도 사회에 나와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많아서 취업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현재 각자의 업무에 충실하시면서 인터넷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 사회가 필요로하는 지식과 기술을 눈여겨보고 관련된 자격증을 미리 취득하는 것이 전역 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경력수첩을 발급받으시고 '정보통신 감리 자격증'도 미리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불안함을 가지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 해나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우리동네 철도건널목의 안전을 끼퀴는

힌갤한 아제

권영우 예비역해군꾼위 요란한 알람이 울리고 차단봉이 내려온다. 알람소리와 동시에 황급히 도로 중앙으로 달려나가서 주변 차량을 통제하고 기차가 지나갈 동선의 안전을 확보한다. 한때는 해군에서 군악대장으로 세계 여러 나라를 순회하며 음악연주 활동으로 대한민국을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했고, 지금은 철도건널목 안전원으로 일상에서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예비역 해군 준위 권영우 씨를 만났다.

글 **양일석** 사진 **권진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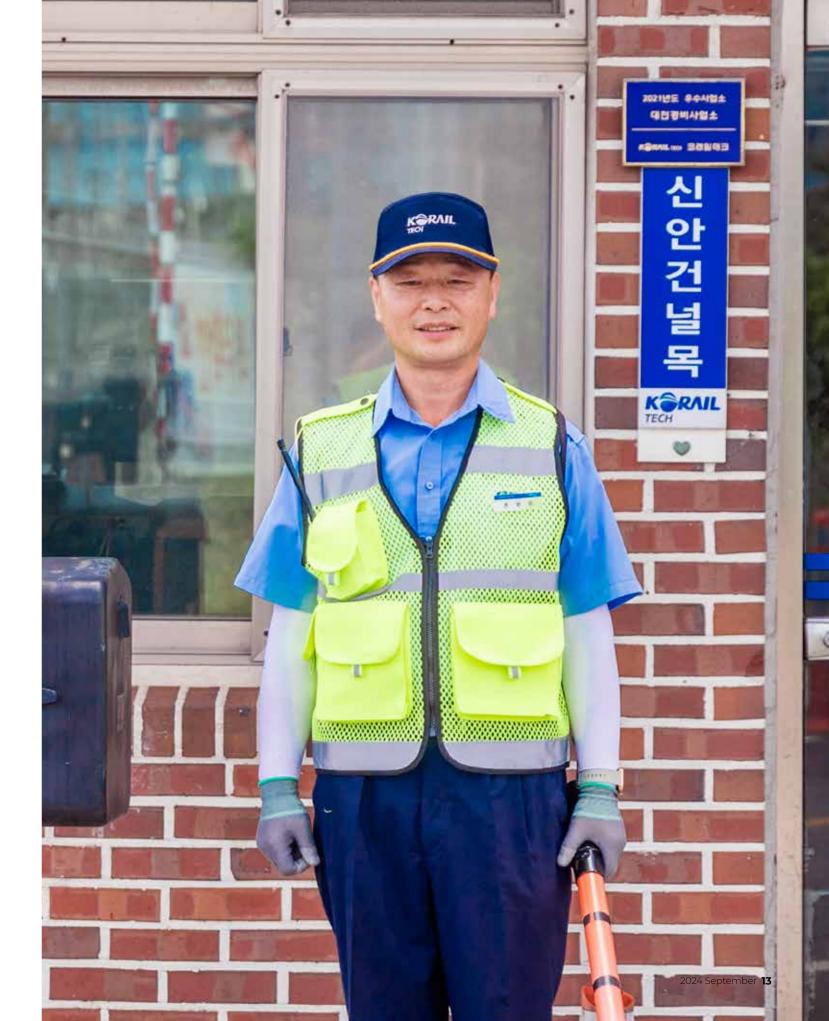


멘티: 자기 소개를 부탁할게요.

멘토: 현재 저는 코레일테크 소속 신안건널목 안전원으로 2022년 7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치원역 인근 건널목에서 열차운행 시 건널목을 통과하는 차량 및 보행자를 통제하여 안전하게 건널목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건널목 안전원은 공무직으로 책임감과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멘티: 제대 후 현재 일을 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멘토: 퇴직 전 전직 지원 교육을 받아서 기본적인 진로에 대해서는 이해했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많이 암담했습니다. 퇴직하게 되면 음악 관련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퇴직할 무렵에는 우리나라 음악 관련 산업이 많이 침체되고 퇴보하기도 했고 축소되어서 전문 음악인으로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음악과는 무관한 국가산업 관련 직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Service

군 생활할 때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했게만 여기/사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 리;스펙 제대군인 Vol.223

그러던 차에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공무직 관련 도로 보수나 건널목 안전원을 소개해 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합격하게 되어 지금까지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며 꾸준 하게 직장생활을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대전 제대군인지원센터 이은주 상담사께서 전 화와 대면 상담을 하며 직접적인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늘 감사함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멘티: 생각보다 기차가 많이 지나다니는데 힘들지는 않나요?

멘토: 평균 1시간에 6대 정도 1일 170여 대의 기차가 지나가고 있고, 밤 12시부터 5시까지는 운행되지 않습니다. 기차가 건널목에 도착하기 1㎞ 전에 알람이 울리고 대략 40초 후에 기차가 지나갑니다. 각 건널목 상황에 따라서 기차 통행량이 다른데 제가 근무하는 이곳 신안건널목은 비교적 통행량이 많은 편입니다. 결코 쉽지많은 않은 직업이지만 벌써부터 연금만으로 생활할 수는 없죠. 어떻게 보면 아직 젊은 나이인데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젊음에 대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합니다. 백세시대에 장기적으로도 일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며 가능하다면 80세까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멘티: 근무하면서 느끼는 직업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는 일주일이 6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야간 근무 시에 주간에 개인적인 업무도 볼 수 있어서 시간 활용이 용이하며 4일만 근무하면 휴일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4일 근무 2일 휴식이라는 무한반복으로 때로는 지루함과 싫증이 날 수 있어서 꾸준함과 성실함이 없으면 근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명절이나 연말연시가 별도로 없으며 필요시 휴가를 쓸 수 있지만 근무 여건을 생각하면 휴가를 무한적으로 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멘토: 건널목 안전원으로서의 장점은 주간 근무 2일과 야간근무 2일 휴일 2일로 여기서

멘티: 이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이나 자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멘토: 건널목 안전원이라는 직업은 기본적으로 나보다는 남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 생활할 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했지만 여기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면 성실한 마음과 건강한 신체가 있어야 하고 안전함을 계속 유지하려면 정확한 판단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한 정신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철도안전 관련법이나 용어 등을 숙지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건널목의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수시로 현장감시와 CCTV를 확인하는 등 근무시간에는 늘 긴장하고 있어야합니다. 열차 통과 전에 선로의 확실한 안전을 확보하여 기차와 차량 및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멘티: 일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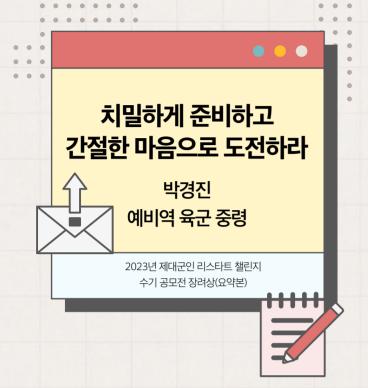
멘토: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음주 보행자로 인해 위험하고 아찔했던 상황입니다. 2023년 가을 밤 9시경 한 주취자가 음주 후 건널목을 비틀거리며 지나가던 중 열차의 접근을 알리는 경보장치가 울렸습니다. 놀란 보행자는 상행선과 하행선 중간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찔하고 위험한 상황이라서 재빨리 관계 역에 알리고, 열차는 중간에 정차시키고, 뛰어가서 보행자를 데리고 나와서 다행히 사고를 면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항상 같은 자리에서 근무하다 보니 주변에 사는 이웃분들이 지나가실 때마다 인사를 주고받게 됩니다. 가끔은 이웃 주민이 직접 수확하였다며 옥수수나 대추, 감 등을 갖다 주셔서 동료들과 나누어 먹은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멘티: 나와 같은 직업을 가지길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멘토: 모든 일은 쉽다고 생각하면 쉽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든 건강한 신체와 정신으로 도전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생각은 버리고 신입사원이라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배워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으면 합니다. 또한 퇴직 후 일자리 관련해서는 국가보훈부 산하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교육 지원과 일자리 지원은 물론 다방면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상담하셔서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전역을 앞두고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걱정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 막막하고도 답답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전역한 선배들로부터 다양한 조언을 듣고자 했다. 많은 조언 중에서 취업과 개인사업에 모두 실패한 선배가 한 말이 가슴에 깊게 남았다. 전역 이후 자신을 객관적으로 그려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매사 최상의 상태가 아닌 최악의 상태를 먼저 고려하여야 하며,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길면 기회를 놓칠수도 있지만, 군 생활에서 체득한 과감한 행동이 오히려 독이될 수 있다는 말이었다. 이 말을 들은 후 나의 취업에 대한 고민은 오히려 점점 두려움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한 준비 시작

그러다 우연히 우리 시대의 천직이라는 방송을 통해 직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었다. 방송의 주된 내용은 오늘날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아버지 세대와는 달리 우리 세대는 제1의 직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제2의 직업을 준비·선택하여 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많은 직업 중에서 선택의 최우선 고려 요소를 단순히 금전이라든지, 타인의 눈 등 외형적 요소에 한정하면 제한 요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중년의 나이에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용기와 모험보다는 안정과 균형을 고려해야만 인생 2모작을 성공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직업은 가장 잘하는 것을 선택해 야 하며, 두 번째 직업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내가 좋아하며 보람을 느끼었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열해 보니 여행, 분재, 글쓰기, 독서 등 다양했고, 군 생활하면서 내가 가장 즐겁게 했던 업무 를 정리해 보니 사관학교 교관과 학군단장 시절의 교육 및 훈 육, 그리고 연대 본부중대장과 항공작전사령부 본부근무대장 시절의 다양한 시설 및 사업 관리였다. 내가 군 생활간에 보람 을 느낀 교육 및 훈육 분야와 시설 관리에 필요한 전문 자격증 을 파악한 결과 나에게 필요한 자격증은 심리상담사, 인성지 도사, 청소년상담사, 정보처리·전기기능사, 위험물 안전관리 자 자격증이라 판단되어 전직기본교육에 입교하기 전부터 준 비하였다. 무엇보다도 적지 않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한 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더욱이 집에서 공부하니 집 중이 되지 않아 기대한 성과에 미치지 못했다.

나는 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실무 교육을 받은 후 다시 입시생으로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세부 로드맵을 작성하여 매일 6시에 기상해서 7시에 집을 나서 학원과 도서관에서 22시까지 치열하게 공부했다. 그 결과 목표로했던 6개의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였다. 군 경력과 연계한 자격증을 갖췄기에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에 충만하여 취업 관련 사이트를 확인하며 본격적으로 취업 일선에나섰다. 계획한 자격증 취득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어 취업이마치 눈앞에 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되었다.

실전 도전과 실패의 반복

희망하는 직업군을 설정하고 취업 관련 사이트에 가입한 직 후에 원하는 직업군에서 모집 공고가 게시되면 지원서 작성 에 필요한 기초 지식(목표, 비전, 연혁, 대표의 인사말과 신년 사, 최근 관련 기사 등)과 공개가 의무화된 정기 및 수시 감사 결과(공공기관 및 공기업)를 참조하였다. 이력서를 작성할 때 는 이력서 관련 서적과 컨설팅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자 격증만으로는 취업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군에서의 업무 경력과 자격증의 연관 관계를 최대 한 접목하여 지원서를 작성하였고, 무엇보다 군 경력과 역량 군 생활 동안의 성과를 직업별·직책별로 정리하여 나를 홍보 하는 마케팅 도구로 삼아야 한다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 또한, 반드시 해당 기업 및 직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수집한 후 자 기소개서는 해당 직무 관련 경험과 실무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모집하는 지원 분야에 맞게 군에서의 직 무 관련 경험과 성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아울 러 지원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직업별로 구분·정리하여

매번 작성 시 참조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였다.

무엇보다 이력서에 첨부되는 증명사진은 첫인상이기에 중요 하다고 판단되어 정성을 많이 기울였다. 가지고 있는 기존 증 명사진은 짧은 머리에 검은 얼굴로 상대에게 위압감이 느껴 지는 사진이 대부분이어서 기존의 사진은 과감히 다 버리고 유명 사진관에서 보정한 부드럽고 세련된 증명사진을 활용하 였다.

매번 서류전형에서 통과되자, 나는 마치 취업이 눈앞에 와있 는 듯한 생각에 취해 있었다. 면접은 육군 전문면접관으로서 수년간의 임무 수행을 통해 장교, 부사관, 군무원을 선발한 경 험이 그 누구보다 많았기에 자신감이 있었다. 최대한 많은 자 료를 바탕으로 사전 예상 질의서를 준비하여 면접에 임하였 으나 기대와는 달리 최종 면접 단계에서 번번이 실패하였다. 최종 면접 단계에서의 실패로 낙담하고 있던 나에게 구세주 처럼 나타난 것이 대전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진 행하는 면접 교육과 모의 면접이었다. 면접 교육과 모의 면접 을 통해 복장 및 면접 자세와 태도, 면접 스킬을 배우고 익히 는 과정에서 모의 면접관이 지적한 내용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자신이 하고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픈 말을 하는 것이며, 경력은 단순히 과거의 성과를 자랑하는 것이 아 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군 경력이 회사 발전에 어떻게 기여 할 것인가를 정확히 피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력으로 인 정됩니다." 상담사의 이러한 지적에 나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큰 충격을 받았으며, 내 자신의 자격증 취득과 군 시절 면접관 경험이 자신감이 아닌 자만으로 작용하여 오 히려 독이 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현장에서 답을 찾다

집에 와서 면접관이 지적한 말을 되새기며, 재취업이라는 어려운 과정에 너무 쉽게 접근하였다는 반성을 함과 더불어 지금까지 해왔던 서류 작성과 면접 방법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였다. 서류는 단순히 군 경력과 성과를 제시하는 데에서 벗어나 회사가 요구하는 경력과 나의 군 경력과 군에서의 성과를 접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다. 면접은 취업의 당락이 결정되는 최종 관문이기에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에 포커스를 맞추어 회사가 요구하는 인재상, 회사의 목표 및 비전, 신년사와 인사말에 나타난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 전면적으로 보완하였다. 또 면접 시 발표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면접을 대하는 태도이기에 예상 면접 질문지를 만들어 거울을 보며 혼자 연습한 후 가족들 앞에서 면접장 분위기를 최대한 연출하여 연습하였다.

그리고 비록 내가 원하는 직책은 아니더라도 사회 경험과

경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안전부 중년 일자리인 주민 자치위원회 행정 보조직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여, 하루에 5시간 근무하며 취업은 단거리가 아닌 마라톤이라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 정보 이외에도 다양한 취업 사이트도 매일 확인하면서 취업을 준비해 나갔다. 그러던 중 보령시가 전액 출자한 보령축제관광재단이 보령머드테마파크를 준공했는데, 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루었던 머드축제와 머드박람회를 위한 기반 시설이다. 재단 측은 3년 임기에 최대 5년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보령머드테마파크 운영국장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이에 보령에 있는 지인을 통해 확인해 보니, 그는 재단 직원의 대부분이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공무직으로 입사하며, 무엇보다 보령에 연고가 전혀 없는 나는 불리하다고 만류하였다.

지인의 말만 듣고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워 고민을 거듭하다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를 몰고 보령으로 갔다. 보령축제관광재단 사무국장과 대표이사를 만나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재단의 인적 현황을 확인해 보니, 지인의 조언처럼 현재 사무국장과 대표이사도 보령시 공무원 출신이며, 현재 운영국장으로 내정된 자는 없지만, 테마파크 운영 경험이 있는 자를 선발하려고 한다는 얘길 들을 수 있었다. 이에 나는나의 군 경력 중에서 시설 및 사업관리 경험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무엇보다 재단 대표이사로부터 차후 테마파크 운영에 대한 재단의 세부 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사전 준비 과정은 큰 도움이 되어 보령축제관광재단 운영국장으로 채용되었다.

실패하면 또 치밀하게 준비하고 간절하게 두드려라

전역 이후 재취업이라는 막막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능열쇠는 존재하지 않는다. 군에서 체득한 많은 장점을 상대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절대 포기하지 않고 또 도전하는 것만이 전역 후 재취업의 유일한 열쇠라고 말할 수 있겠다. 예전에 재취업에 계속 실패하는 나에게 집사람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언제까지 재취업에 도전할 것인지 물어본 적이 있었다. 내가 군에서 체득한 가장큰 재산이 끈기이자 도전이기에, 취업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할 거라고 답한 기억이 난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후배 제대군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취업전선에서 여러 번 고배를 마시면 지레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절대 포기하지 말고 실패를 교훈 삼아 치밀하게 준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 취업의 문은반드시 열린다는 것이다. ㈜

※ 본 수기는 개인의 경험으로 정부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수기는 지면 관계상 내용이 다소 요약되었습니다.



동북아/이아 회대물류 개점인 부산항 약낀의 숨은 꾸역 부산항인력관리꾸겍회/N(PRS)

부산항인력관리주식회사(PRS)는 부산 항만 터미널 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장에 필요한 인력 지원/관리를 제공하며, 전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하여, 부산항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부산항인력관리주식회사(PRS)'는 조금은 낮선 이름인데 회사소개를 부탁합니다.

- ○김인수 대표 ____ 저희 PRS(Port Resources Supply)는 부산항, 북항, 신항인력관리㈜ 3사로 이루어 져 있으며 국내 유일의 closed shop 노동조합인 부산항 운노동조합을 노측 파트너로 노사관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컨테이너 부두 운영사와의 도급계약으로 항만 내 야드트레일러 운전원 및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 원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 ○권혁기 상무이사 _____ 터미널에서 컨테이너를 배에서 내리거나 배에 싣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화물선이 늘 규칙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날씨나 계절,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물동량이 달라집니다. 항운노조에서 직원들을 그때마다 새로충원하거나 퇴사시킬 수 없으니까 터미널 전체에 필요한 인력 중 대략 70%~80% 정도가 상용인력으로 근무하고, 나머지 인력을 저희 회사가 수급하게 됩니다.

PRS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력수급이 필요한가요?

○ 김인수 대표 ____ 저희가 부산항, 북항, 신항 세 군데를 다 관리하는데, 지금 직원이 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항운노조의 정직 조합원으로 옮겨 가는분도 계시고 물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직원은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곳 부산항의 물량이 계속 늘어나서 지금 진해 신항까지 건설 중이라 앞으로도 더욱 많은 인력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취업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 김인수 대표 _____ 현장에 투입된 직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은 화물을 배에 선적하고 내리는 일입니다. 컨테이너를 화물선에서 하역하거나 배에 선적할 때 흔히 '추레라'라고 부르는 'Yard Trailer'를 이용합니다. 저희가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인력은 바로 터미널 내에서 추레라를 운전하는 운전원입니다.
- ○권혁기 상무이사 _____ 저희가 사용하는 추레라는 도로에 나가지 않고 터미널 내에서 선적과 하역에만 운용합니다. 그래서 차량에 번호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짧은 거리를 단순 왕복운행하는 일이라서 업무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 ○석회덕 총괄반장 ____ 저희 회사는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 이틀, 야간근무 이틀, 그리 고 비번 이틀입니다. 근무는 2시간 일하고 1시간을 쉬는 형태입니다.



대형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나요?

- 김인수 대표 _____ 야드 트랙터를 몰기 위해서는 대형 견인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대형 견인면허는 기존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2년만 경과하면 누구나 면허취득을 위한 시험을 볼 수 있고 4일 정도만 연습하시면 어렵지 않게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면허증이 아니라 실제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실력인데 저희 회사에 입사하면 교관을 투입해서 1대1로 매칭을 해주고 단독 운전이 가능할 때까지 멘토가 되어 줍니다. 보통은 한달이내에 단독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 강민 기획과장 _____ 추레라가 일반 차량에 비해 크다보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운전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4일 정도만 연습하면 충분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회사에서는 맨 투맨으로 10년 이상 추레라를 운전하신 분들이 같이 동승을해서 완전히 적응할 때까지 100% 도움을 드립니다.
- 권혁기 상무이사 _____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면허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와서 적어도 15일 이상 현장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현장에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모든 것은 안전을 위한 일입니다. 잘못된 인력을 투입시켰다가 사고가 나면 모두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전을 조금이라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철저하게 교육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Q. 제대군인을 채용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 김인수 대표 _____ 항만은 24시간 운영체제입니다. 정확한 작업과 시간엄수, 의사소통, 그리고 지시에 대한 작업처리 등의 업무 처리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여, 제대군인의 책임감과 팀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시 에 대한 업무 처리 능력이 기본으로 소양되어 있는 점에 서 제대군인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 석회덕 총괄반장 _____ 현재 근무하시는 분 중 제대 군인은 15명이며, 모두 야드트레일러 운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대군인분들은 단체생활에 있어서 규칙준수 를 잘 하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특출합니다. 야드트 레일러 운전원들은 교대제 근무를 합니다. 교대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일부 직원들이 있어 생산성 저하 및 교 대하는 직원끼리 불만이 야기되기도 하는데 제대군인은 교대시간 엄수 및 기본수칙 준수 부분에서 탁월합니다.
- ○박성준 사원 ____ 전역하고 나서 취업을 알아보던 중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소개로 부산항인력관리주식회 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가 조금 미흡했지만 초보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생각이들어 지원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대군인 박성준 사원은 사정상 서면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Q. 타 회사와 차별화되는 PRS의 장점을 말씀해 주세요.

- 김인수 대표 ____ 우선 대한민국에서 고용에 있어 가장 안전한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부산항이 망하지 않는 이상 고용에 대한 불안없이 일할 수 있죠. 그리고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이 단독으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무료로 교육하고 테스트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사이에 안전을 중시하고 무사고가 원칙이라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 이명애 운영지원팀장 ____ 저희 현장은 가족과 같은 분위기입니다. 모든 야드트레일러 기사들이 형님, 동생이라 호칭합니다. 관리직과 현장직이 서로 소통하는 유대관계가 형성이 잘 되어있습니다.
- 석회덕 총괄반장 ______ 항운노조는 부산항 운영의 필수 요소로 컨테이너 터미널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 을 하고 있고 그만큼 조합원들에 대한 대우도 거의 대기 업 수준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은 따로 뽑지 않고 임시 조합원 가운데서 선발합니다. 저희 PRS는 임시조 합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유일한 회사라서 열심히 근무 하시면 부산항운노동조합의 일원이 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박성준 사원 _____ 개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하면 다른 일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서 불필요한 스트레 스를 받지 않습니다. 또 동료 사이가 좋아서 분위기가 정 말 좋습니다. 제대군인들은 조직생활에 익숙해서 동료 간에 친분유지 및 단합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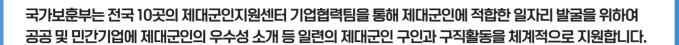
Q. 전역을 앞둔 제대군인들에게 조언을 건넨다면?

- 김인수 대표 ______ 항만 물류 산업은 부산지역의 주된 업종이며, 야드트레일러 운전 업무는 항만 업무의 생산성 기여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업무입니다. 기본 안전수칙만 준수한다면 위험의 부담이 없고, 안정된환경 내에서 지속 가능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신체 건강과 무사고 의식만 가지고 있다면 정년이후에도 촉탁직 계약을 진행합니다. 제대군인으로서 기능직군으로 제2의 직업을 선택한다면 잘 적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 권혁기 상무이사 ______ 항만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 교류를 할 수 있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 성할 수 있음은 물론 항만하역장비와 항만의 특성에 대 해 배울 수 있습니다. 좋은 경험을 하며 여러 가지 배울 것들이 많기에 부산항에서 근무하면서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면 좋을 듯 합니다. ��





제대군인 전직지원 위한 기업협력



기업협력 내용

- 1社 1제대군인 채용 추진
-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 제대군인 적합 일자리 발굴 및 채용추천
- 구인·구인 행사(취·창업 박람회)
-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참여 등



기업회원에게 제공되는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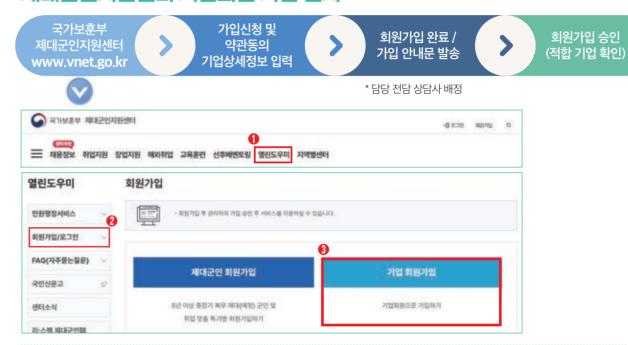
- Vnet(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채용공고 무료 게재
- 인재검색 가능
- 준비되고 검증된 인재 추천
- 제대군인 취·창업 박람회 우선 참여 기회 제공
-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







제대군인지원센터 기업회원 가입 절차



기업이 원하는 인재 추천

- 제대군인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기업에 적합한 우수인력 양성
- * 여성 제대군인 적극 추천



제대군인 채용시 지원제도

- 고용주(기업)에 대한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제23조
- 청년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 제대군인(청년)에 대한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 채용 시 우대 등(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 제16조

22 리스펙 제대군인 **Vol.223** 2024 September **23**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셀프스토리지'

집이 아닌 외부 공간에 장기간 짐을 맡아 주는 '셀프스토리지' 서비스는 누군가에겐 생소하고 누군가에겐 익숙할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이미 개인이나 기업의 물품을 보관해 주는 셀프스토리지 시장이 대중화되어 있다. 2021년 기준으로 글로벌 셀프스토리지 시장 규모는 74조원에 달할 정도다. 외국계 증권사에 근무하던 홍우태대표는 집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를 고려했을 때 외부에 짐을 보관하여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셀프스토리지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 2016년 세컨신드롬을 창업하게 됐다.

세컨신드롬의 '미니창고 다락'은 옛날 집에 있던 다락방처럼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역할을 한다. 최소한 달 단위로 요금을 지불하면 다양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 공간을 제공하며, 보관 유닛사이즈도 고를 수 있고 짐이보관되는 환경은 자동으로 쾌적하게 관리돼 걱정이 없다.

AI 기술로 24시간 안전하게 관리되는 **미니창고 다락**

지점별 미니창고 다락은 사물인터넷(IoT)과 AI를 통해 무인으로 휴일 없이 24시간 운영되며 앱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들의 출입이 가능하다. 다락 AI 관제 솔루션이 이를 관리하며보관된 물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온도와 습도도 유지해준다.

집 보관 비용은 한 달 단위로 책정되며, 지점별 재고 보유량에 따라 가격에 탄력성을 두어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보관 유닛의 사이즈는 큐브, 스몰, 미디움, 라지, 미니, 컴 팩트, 슬림으로 나뉘어 있어 소형 잡화, 캠핑용품, 이삿짐, 계절이 지난 옷, 피규어 등 다양한 종류의 물품을 용도에 맞게 선택하여 보관 가능하다. 군부대 근처 지점도 국군장병들이휴가를 오고 갈 때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수요가 높다.

이 외에도 구조물 침범이나 대각선 구조로 물품 보관에 머리를 써야 하는 '깍두기 유닛'을 최대 50% 할인하는 프로모션, 최대 4인까지 유닛을 함께 이용 가능한 다락 패밀리 등으로 고객들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 외에 물품을 비대면으로 이동해 주는 픽업 서비스와 미니창고 다락을 활용한 이사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창고를 집 밖으로 꺼내 **주거생활의 질 향상**

홍 대표는 현금 창출이 쉽고, A를 활용하며,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사업을 하겠다는 기준을 세우고 치열한 시장조사 끝에 2016년 서울 강남구에 미니창고 다락 1호점 '휘문고점'을 오픈했다. 홍보를 위해 가방에 전단지를 가득 채워서 빌딩 54층까지 직접 전단지를 돌렸고 이후로 입소문을 타 현재는 91.5%의 재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세컨신드롬의 핵심가치는 도심이 점점 복잡해지고 1인 가구는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어디서든 쾌적하고 유연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위해 세컨신드롬의 구성원들은 핵심가치에 깊이 공감하고움직인다. 그 결과물이 미니창고 다락의 다양한 서비스들로실현되고 있다. '초공간 시대'를 열겠다는 세컨신드롬의 비전은 높은 집값, 주거 공간 선택지의 한정성, 도심 주거 생활의불안정성에 노출된 시민들에게 힘이 되어 준다.





전국과 해외로 진출해 **삶을 바꾸는 기업**으로 나아가다

미니창고 다락은 특별한 노하우나 많은 투자비용 없이 안 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이다. 무인운영 솔루션으로 100% 관리되어 지점 운영에 어려움이 적으며 안전한 관리로 올해 폭우 속에서도 물품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별성에 힘입어 지난 6월 국내 셀프스토리 지 업계 최초로 100호점을 돌파하며 1위를 유지 중이다. 또한 세컨신드롬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의 아시아-태평양 고성장 기업에 2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해외의 관심을 바 탕으로, 미니창고 다락의 AI 기반 무인 운영 솔루션을 서비 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수출 추진 중이다. 대부분의 글로벌 시장에서 세컨신드롬 수준의 무인 운영 솔루션을 보유한 서비스가 거의 없어 경쟁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삶을 변화시키는 기업으로 나아가는 세컨신드롬은 미니창 고 다락 지점을 2027년까지 800개 확보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물건을 디지털화하여 오프라인 지점을 활용하는 당일배송 물류 서비스나 셀프스토리지와 연동한 커머스 시 스템까지 구상 중이다. 세컨신드롬은 셀프스토리지 업계, 나아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거환경에 새로운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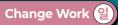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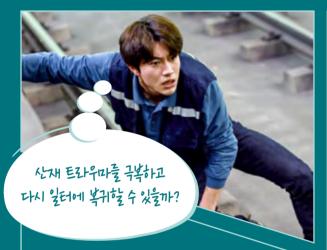


사진 출처_SBS

드라마 <닥터탐정>으로 알아보는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정리 **편집실**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들은 다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새로운 기 술 훈련과 이를 통한 자신감 회복은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산재근로자가 자신있게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산재근로자의 새로운 불발을 위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도중은(박진희)은 놀라운 집중력을 보유한 천재적인 전문의다. 산업재해 현장에 관심을 갖 고 지내던 중 미확진질환센터에 합류하고, 은폐된 재해 와 감춰진 질환들을 발굴해 원인을 규명하는 '닥터 탐정' 으로 활약한다. 한편, 도중은의 옆집에 살고 있는 정하랑 (곽동연)은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 일을 하며 만성 피로 에 시달리고 있지만 가족을 위해 힘든 생활을 감내하는 속 깊은 청년이었다. 하지만 근무 중 의문의 사고로 목숨 을 잃게 된다. 도중은은 과학 수사를 통해 정하랑이 평소 작업 중 미세먼지를 포함해 청소액 유독물질을 지속적으 로 접촉함으로써 '근육 경련' 증세가 생겼고 이 사고가 실 수가 아닌 직업병에 의한 사고임을 증명해 낸다. 정하랑 과 같은 상황을 겪은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이겨내고 다시 사회로 잘 복귀할 수 있을까?





Q.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이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요양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직업훈련사업은 산재근로자의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연령에 상관없이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으로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직업복귀 계획을 수립한 사람이면 지원 가능하다. 또한, 장해등급 확정 전이라도 장해가 남을 것이 명백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통원요양 중인 근로자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다. 훈련직종은 「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과 연계되는 훈련직종이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우선 선정 직종,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직종이 해당한다.

Q. 신청 절차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Step 05
훈련신청	직업평가 및 계획 수립	훈련기관 약정 및 훈련실시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직업복귀
재해자	근로복지공단	훈련기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재해자

Q. 산재근로자 지원 관련 정책

▨ 대체인력지원사업(산재근로자)

소규모 사업장 소속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고용일부터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 전날까지 최소 3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대체인력 임금의 50%를 지원(월 최대 60만원)한다.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산재근로자 복지향상을 도모한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각 1,000만 원 이내,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사업자금 각 1,500만 원 이내 등 세대당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장해인의 직업 복귀를 촉진한다.

마음을 뒤흔들 단 한 문장을 찾아서…

• 책 리뷰 유튜브 추천



겨울서점

책 추천을 받고 싶거나 최근 가장 '핫'한 작가는 누구인지 궁금하다면 작가 김겨울이 들려주는 책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그가 운영하는 북튜브 '겨울 서점'에서는 책 리뷰는 물론이고 작가와 관련한 깊이 있는 분석 영상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추석에 읽을 만한 소설, SF를 좋아하는 독자를 위한 책 추천, 각종 책과 관련한 행사 리뷰등 그야말로 '독자'를 위한 영상들이 넘쳐난다. 책외에도 철학과 영화 등 다방면으로 지식이 풍부한 김겨울 작가의 생각도 엿볼 수 있으니 궁금하다면, 겨울서점의 문을 두드려보자.

02



편집자K

감동이 느껴지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나면 문득, '이렇게 좋은 책은 대체 누가 만든 걸까!' 하는 궁금증이 들 때가 있다. 이러한 물음을 해소해 줄 유튜버 '편집자K'를 소개한다. 그는 18년 동안 출판 사의 편집자로 일하며 유튜브로 좋은 책들을 추천 해 주고 있다. 출판사 취업에 관한 정보와 월별 추 천책 등과 더불어 오직 편집자만 알 수 있는 책 제 작의 비하인드 스토리, 작가와의 에피소드들도 엿 들을 수 있으니 재미가 더해진다. 다양한 게스트와 함께 동네서점을 들러 책을 구매하고 짧게 책을 추 천해 주는 콘텐츠가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 바야흐로 독서의 계절이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자리를 잡고 감성적인 시집 한 권, 박진감 넘치는 소설, 마음을 울리는 에세이…를 읽고 싶은데,

당최 어떤 책으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들을 위해 준비했다. 책 추천부터 줄거리 요약과

결말 해석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독서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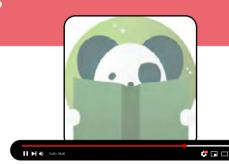


민음사TV

빈음사TV

도스토예프스키, 프랑수와즈 사강, 김승옥··· 한 번쯤 들어본 유명한 작가의 책, 차마 읽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면 민음사TV를 추천한다. 출판사 민음사의 마케팅 팀에서 운영하는 이 채널을 구독하면, 편집자가 직접 소개하는 '고전문학시리즈'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출판사 직원들이 출근길에 읽는 책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통해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질 수 있다. 사내 동아리 활동 모습과 워크숍, 도서전 등의 현장을 담거나 마케팅 팀의막내 직원의 하루를 담은 브이로그도 높은 조회수를 자랑하며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너진똑

긴 글을 읽기 힘들거나 책을 다 읽고 다시 한 번 내용을 상기시키며 여운을 느끼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하는 채널이다. 너진똑은 '어린왕자', '이방인', '데미안' 등 철학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는 깊이 있는 소설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다. 영상만 봐도 대략적인 책의 내용과 핵심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현대적인 요소들과 접목한 영상이 많다. 문학 외에도 철학과 심리학 등에 관한 주제 역시 MBTI, 게임 등 현대인들이 친숙하게 여기는 이슈나 트렌드와 엮어 설명해 주기에 너진똑 영상 하나만 있어도 '너 진짜 똑똑하다'는 칭찬을 듣기에 충분하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무대, 실력파 퍼포머

소리꾼



판소리는 판놀음, 광대, 무가 등의 영향을 받아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까지 가장 성행했으며 지역에 따라 전라도 동북지역의 동편제, 전라도 서남지역의 서편제,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의 중고제로 유파가 나뉘어 있었다.

이 판소리의 핵심이 되는 사람이 바로 소리꾼이다. 소리꾼을 필두로 해서 북 치는 고수와 추임새를 함께 넣어 주는 청중들이 함께 판소리 공연을 만들어 간다. 판소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어디에서든지 펼쳐졌다. 관아에서 하는 행사, 축하 잔치, 마을굿, 양반이나 부호의 집 등에 소리꾼이 등장하면 사람들은 신분을 불문하고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와 노랫소리에 빠져 들었다. 소리꾼들은 장단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소리', 말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니리', 부채와 몸짓으로 연기하는 '발림'을 적절히 섞어 가며 몇 시간에 걸쳐 쫄깃한 긴장과 이완으로 사람들을 이끌었으며, 득음을 하기 위해 고된 훈련도 불사했다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서민들의 희로애락을 그렸던 판소리의 인기는 시간이 흐르며 사그라들었다. 현대에 와서는 객석이 분리된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조선 후기처럼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다. 그러나 판소리의 가치는 여전히 인정받고 있다. 제5호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 및 전승되고 있으며, 다른 음악 장르에도 활용되면서 계속 우리와 함께 현재를 살아가는 익숙한 예술 장르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길거리에서 감미로운 선율로 버스킹을 하는 싱어송라이터를 마주치면 낭만적인 가을의 하루가 완성된다. 분위기는 조금 다르지만, 조선시대에도 길거리나 여러 행사 자리에서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던 예술인이 있었다.





직접 쓴 노래로 감동을 주는 사람들 ______ **싱어송라이터**

판소리 소리꾼의 공연 모습과 닮은 풍경을 현대에서 찾는 다면, 길거리에서 통기타를 치며 버스킹을 하는 싱어송라 이터(Singer-songwriter)의 모습이 연상된다.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노랫소리에 이끌려 즉흥적으로 멈추어 서서 관중이 되고 호응하는 모습은 판소리의 풍경과 흡사하다. 그러나 판소리가 이야기와 연기가 있는 서사시에 가까웠다면 싱어송라이터의 공연에는 주로 노래만 있다. 작사와 작곡을 겸한다는 점도 싱어송라이터만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미국에서 포크 음악이 유행하면서 젊은 연주자들이 편곡에 뛰어든 것을 시작으로 싱어송라이터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이들은 직접 곡을 쓰고 연주한다. 버스킹으로 곡을 홍

보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매체가 활성화된 오늘날에는 TV 프로그램이나 SNS 등에서 이름을 알리는 경우도 많다. 싱어송라이터가 되는 경로는 다양하나 기본적으로 기타나 피아노 등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작곡과 작사를 위해 화성학 지식, 창의력, 섬세한 관찰력과 감수성도 중요하다. 보컬능력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이를 갖추기 위해 학원에서 레슨을 받거나 관련 학과에 진학할 수도 있다. 다재다능해야 하지만, 스스로 곡을 쓰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울리는 곡을 쓸 수 있다는 점, 자신만의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점 등 매력적인 면모도 많아 더욱 사랑받고 있는 직업이다.





천안의 마천루에서 내려다보는 풍경 청안타유흨

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천안타운홀이 있다. 천안시에서 운영 중인 전망대와 갤러리를 겸한 카페이니 부담 없이 방문해도 좋다. 통유리창을 통해 시원하게 천안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낮에도 노을 질 무렵에도, 밤에도 나름의 매력을 지닌 풍경이다. 저녁 7시부터는 1시간 간격으로 유리창 위로 미디어아트가 재생되는 공간도 있으니 밤에 방문했다면 놓치지 말자. 벽면 갤러리에는 감성을 자극하는 여러 회화 작품을 전시하고 있어 지루하지 않게 여러 가지를 구경할 수 있다. 바닥이유리로 된 구역도 조그맣게 마련되어 있어서 한 걸음 올라서서 아득한 높이를 체험해 보는 것도 재미있다. 카페로서 즐기기에도 충분하다. 좌석 수도 넉넉하고 음료값도 저렴한 편이며 커피, 티, 에이드 등 다양한 선택지가 준비돼 있다. 천안타운홀에서 향긋한 카페 음료 한 잔의 여유를 탁 트인 뷰 속에

힐스테이트처안 건물의 아득한 꼭대기 층인 47층에 천안 시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옛시청길 29, 힐스테이트 천안 47층

서 즐기며 달콤한 추억을 남겨보자.



'천안 삼거리' 노래를 따라 천안 삼거리 근처로 가면 천안박 물관과 천안흥타령관이 눈에 띈다. 그야말로 어울리는 자 리에 위치한 박물관들이다. 한창 리모델링 중인 천안박물 관을 뒤로하고 방문한 흥타령관은 천안 삼거리의 역사를 바탕으로 흥과 춤, 전통주에 관련된 전시를 진행하는 공간 이다. 전통주라 하니 언뜻 어른들을 위한 박물관으로 느껴 지지만, 나이 상관없이 즐길 수 있도록 체험과 전시가 준비 되어 있다.

천안의 흥은 어디에서 왔을까

천안흥타령관

1층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만들기 체험 공간과 천안 삼거리의 역사 등 흥타령관에 어울리는 전시가 진행되는 기획전시실이 있으며 2층은 '전통주관', '명주관', '흥타령문 화실'로 전시 공간이 나뉘어 있다. 2층의 전통주관과 명주 관에서는 전통주와 관련된 역사, 제조 과정 등 지식도 쌓고 천안의 전통주를 구경하고 향을 맡아보는 전시가 기획됐 다. 흥타령문화실은 천안의 음악, 무용 등에 대한 소개뿐 아 니라 전통 악기와 현대 악기 체험, 아이들이 전통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등 생생한 체험 위주로 구성되 어 다 함께 즐기기 좋다. 3층에는 전통주체험장, 춤체험관 등이 있어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 중이다.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412

우리나라를 지킨 신념 이동녕 선생 생가지

천안에서는 김시민 장군, 유관순 열사, 석오 이동녕 선생 등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쓴 위인들이 많이 탄생했다. 천안이 가진 멋진 모습 중 하나다. 그중 독립운동에 평생을 바친 이동녕 선생의 생가지와 기념관을 다음 목적지로 정했다. 자연으로 둘러싸인 이동녕 선생 생가지의 입구에는 선생의 휘호를 새긴 휘호석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 안쪽으로 들어서면 벤치에 차분히 앉은 이동녕 선생의 동상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생가 건물은 고즈넉한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어 둘러보기 좋다.

이동녕 선생은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한국국 민당 이사 등을 역임하는 등 교육자, 정치가로서 독립운동에 힘썼다. 이동 녕 선생 생가지에는 석오 이동녕 기념관이 함께 자리해 있어 이동녕 선생 의 발자취를 자세히 되짚어볼 수 있다. 전시관은 6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동녕 선생의 삶과 사상, 독립운동의 과정을 살펴보고 관련된 체험 학습 등을 해볼 수 있도록 전시가 마련돼 있다.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동리4길 36







독립운동의 기개와 스며드는 가을의 색 독립기념관 ____

독립운동에 몸담은 이동녕 선생에 대해 알아본 후, 독립운동사를 더 깊이 알기 위해 독립기념관을 찾았다. 높다란 겨레의 탑이 멀리에서부터 웅장한 느낌을 준다. 워낙 거대해서인지 가까워 보이다가도 한참을 걸어야 다가갈 수 있다. 겨레의 탑을 지나면 그 너머에 있던 겨레의 집이 모습을 드러낸다. 양쪽으로는 태극기 815기가 일 년 내내 나부끼는 태극기 한마당이 펼쳐져 있다. 드넓고 가슴 벅찬 풍경이다. 독립기념관은 넓은 부지에 다양한 볼거리를 품고 조성되어 있어서 독립운동사를 비롯한 우리의 역사를 꼼꼼하게 알아갈 수 있는 7개 전시관과 입체상영관까지 둘러보려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외부에는 가을에 걷기 좋은 단풍나무 숲길도 있다. 조선총독 부 건물 철거 부재로 조성한 공원을 지나 다른 색으로 조금씩 물들어 가는 푸른 숲길을 걸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단풍이 가장 절정인 시기는 10월 말에서 11월까지이니 그 무렵에 다 시 방문하여, 예쁘게 물든 단풍과 함께 매년 개최되는 단풍나 무숲길 힐링축제를 즐겨 보는 것도 좋겠다. ☞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

'나다웅', 왜 나에게는 이토록 어려울까

글 **최은영**(Live Stories 대표)

지는 30대 중반의 여성 군인으로, 앞으로 1~2년 내 제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점차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모두 제가 기꺼이 선택한 길이었음에도, 일단 이 경로에 들어서면 적정한 균형을 찾기 어렵고, 가족을 위한 노력과 헌신에 점점 더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을 가장 뒷전에 두게 되었어요. 제대 후, 육아를 하면서도 어떻게 저 자신을 잃지 않는 의미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사는 것의 난감함(?)

육아는 한 생명을 다루고 성장시키는 일이기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생각을 엄마 스스로 강하게 하기 마련 입니다.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하지만 늘 부족한 것 같고, 다시 또 그 이상으로 쏟아붓습니다. 남들 하는 것 하나라도 놓치면 자격 미달 같고, 아이 외에 다른 것에 시간을 투입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심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우리 아이와 관련된 일 외에 시간을 투자 할 때는 매우 강력한 명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자라면서 알게 모르게 '모성'이라는 틀을 주입받아 왔습니다. '이런 것이 훌륭한 엄마다.'라는 이상적인 모습에 나도 모르게 맞춰갑니다. 물론, 나의 아이를 향한 온 진심이 모성의 중심 이지만, 내가 사는 시대가 제시하는 각종 육아의 기준에 맞춰 야 할 것만 같습니다. 바로 육아나 교육 시장이 부모의 역할 에 대해 '그때가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큰일이 날 것처럼 겁 을 줍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명분이 있어야 자신을 위 한 시간을 허락할 수 있을 것 같은 심정이지요.

그렇게 엄마는 치열하게 삽니다. 그렇게 살며 엄마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볼 여유를 내지 못합니다. 설사 살짝 여유가 생겨도, 부족한 모성을 채워야 한다는 생각에 결국 그 여유는 나를 위해 쓰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면, 자신 과 사회를 연결하는 감각을 점차 잃어갑니다.

내가 처한 상황의 재구성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를 잃어버렸다' 또는 '나다움을 발견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과연 '진정 나다운 것에 대해 알고 있나요?' 커리어를 지어 올리는 동안,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정말 나다운 선택이었는지 질문하는 계기가 지금 찾아왔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나를 잃어버렸다'고 말할 때 '무엇을' 잃었는지 구체적으로 대답하기 어렵다면 현재까지의 커리어가 앞으로의 삶을 지속할 동력으로서는 어쩌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 선택의 맥락이 아니라 새롭게 나다움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가정하면, 빼앗겨 손해 보고 있다는 억울한 감정은 줄어들고,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다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지금을 계기로 '나다움'을 단단하게 지어 올려서, 나의 일, 나의 육아, 나의 가족에 대한 노력과 봉사 모두를 조 화롭게 가져가는 힘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내 삶에 대 한 주도성, 즉 '나다움'을 가지려면 삶에 어떤 요소를 추 가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나의 '필터'를 만들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 요. 대통령 연설 비서관으로 재직하신 바 있고, 현재는 < 대통령의 글쓰기>, <강원국의 인생공부> 등 활발한 집 필활동을 하고 계신 강원국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 셨어요. 원고를 써내야 하는 상황이면 원고의 키워드를 파일명으로 컴퓨터 바탕화면에 파일들을 정렬해 두신다 고 합니다. 그 키워드를 염두에 두면 일종의 필터가 되 어, 같은 걸 보더라도 예전과는 달리 그 키워드와 연결되 는 콘텐츠가 걸러진다고 합니다. 머릿속에 늘 자리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필터링된 재료가 점차 엮이고 성장 하게 되는 원리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키워 드에 해당하는 것을 내 속에서 찾아보는 방법은 무엇일 까요? 저는 사회적 실현 욕구에 집중하자는 제안을 합니 다. '나는 무엇을 할 때 사회적 활동자인 나로서 가장 쾌 감을 느끼는가?' '무엇을 어떻게 할 때 가장 인정을 받는 가?'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하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 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지금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미래의 나는 어떠하길 바라는지, 쭉 그려본 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추구할 키워드 몇 가지가 발견될 겁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마음껏 표현하기'입니다. 앞으로 추구할 삶의 맥락과 키워드가 어느 정도 구성된다면 그것을

계속 글이나 말로 뱉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사회적 실현 또는 연결 욕구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이야기를 계속 밖으로 내보이고 사람들의 피드백을 듣고 재구성을 반복하여 농축된 짜임새로 만들어야합니다. 그래야 쉽게 잊히지 않으니까요. 그 표현을 통해생겨나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결국 작은 활동이 되고, 일상의 실천을 만들어내며, 점차 계획 또는 프로젝트가 되고, 나아가 인생의 작업, 또는 제2의 인생을 위한 '업'이될 수 있는 방향이 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

이렇게 의식을 기획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점차 진화하는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찾게 됩니다. 단단하게 지어 올려진 '나다움'은 쉽게 타인과 비교해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지요. 그리고 나에게 제일 중요한 가족에 대한 사랑과 노력을 실천하는 방법도 그에 따라 찾게 됩니다. 단단한 중심을 지켜가면 제한된 시간 자원하에 최대의 효과를 거둘 방법을 다변적으로 구하는 힘이 생깁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주변을 설득할 수 있게되면 내 시간의 확보를 위한 요청도 당당하게 할 수 있게될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저 아래 가라앉아 있는 것을 찾아서 길어 올리면 됩니다. 분명히 거기 있 거든요. '계속 떠올리고 구체화하기!' 그렇게 시작해 봅 시다. ❸

•

글쓴이 소개

엄마사회학 콘텐츠 창작소 '리브 스토리즈' 대표, 라이프코치(한국코치협회 인증 전문코치), <쓰다 보니 나를 만났습니다>(2023년 6월 출간) 공저 작가

과업은 선임이! 포상은 후임에게!

각색/그림 최승춘





































20년 넘는 저의 군 생활 동안 자신의 포상 휴가를 후임병에게 양보하는 유일했던 일로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참고로 그 후임 병사는 이후 더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군 생활을 하였답니다.

·예비역 육군 소령 임진혁·

38 리;스펙 제대군인 Vol.223 2024 September 39 오늘도 ESG

지구를 생각하는 이달의 기념일

매연 뿜는 자동차와는 잠시 안녕 9월 22일 세계 차 없는 날

차가 많아도 너무 많은 오늘날이다. 도심에서는 주차를 하려면 한참 동안 눈치 싸움을 하거나 주차 자리가 있는 곳을 찾아 멀리 돌아야 한다. 차가 많은 만큼 매연으로 인해 맑은 공기가 오염되기도 한다. 하루라도 이런 스트레스에서 해 방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1

프랑스 항구 도시에서 시작된 차 없는 날

차 없는 날 캠페인은 1997년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항구 도시 라로쉐에서 일 년 중 하루라도 자가용을 타지 말고 교통량 감축과 환경 개선에 힘쓰자는 상징적인 시민 운동이 전개된 것이다. 이듬해에는 이 운동이 프랑스 전역으로 퍼졌고, 2000년에는 유럽연합을 포함한 30개국 813개 도시가 여기에 참여해 제1회 '유럽 차 없는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캐치프레이즈는 '도심에서는 자가용을 타지 맙시다(In town, without my car)'였다.

그리고 2001년, '세계 차 없는 날'이 공식적으로 지정되어 전 세계 1,300여 개 도시로 확대됐다.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부터 서울과 대구 등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차 없는 날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2008년부터는 정부 주도로 규모를 확대해 이어지다가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잠시 휴식하며 일부 지역에서만 기념하고 있다.



2

유럽의 교통 주간과 차 없는 도시 '폰테베드라'

유럽에서는 세계 차 없는 날을 하루로 끝내지 않는다. '교통 주간(Mobility Week)'을 설정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한 주를 보낸다. 올해의 주제는 '공공 공간 공유'로 이와 관련된 활동을 비롯해 자전거 통근,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 체험 행사 등다양한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활동은 교통량 감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최근 문제가 되는 탄소 배출 문제까지 개선할 수있다. 이런 이유로 유럽 각지에서는 도심에 차가 없거나 최소한으로 운행되는 '차 없는 도시'를 구현하기도 했다. 스페인의 폰테베드라가 그 원조다. 1999년부터 일반 차량뿐 아니라 대중교통 수단까지 도심으로부터 도보 10분 거리까지 진입할 수 없도록 했다. 극약 처방이었지만 도심은 오히려 활기를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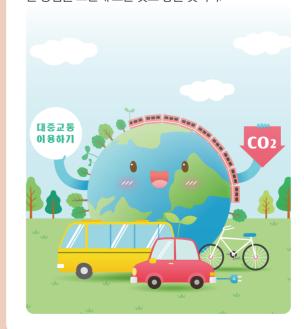




3

내연기관 자동차를 줄여야 우리가 산다

한편 '차 없는 날'의 취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 이 기념일이 문제시하는 자동차는 주로 내연기관 자동차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에너지전망 보고서에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넷제로(Net Zero)를 달성해야하며 이를 위해 수송 분야에서는 전동화, 그린수소 및 저탄소 수소 사용, 합성연료 및 바이오연료 사용 등을통해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당장 내연기관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기란 어렵겠지만화석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거나 연료소비효율이 향상된 자동차로 점차 전환해야만 우리 지구를 지킬 수있다. 세계 차 없는 날을 알게 된 만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동참해 한 주 정도는 내연기관 자동차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일상 속 차 없는 날 실천법

평소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차 없는 날이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자. 가까운 거리라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마도 대부분이 익숙하게 떠올릴 대안이겠지만 그만큼 효과적이다. 부득이하게 운전을 해야만 한다면 친환경 운전을 실천해 볼 수도 있다.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경로를 예측해서 급출발·급가속·급감속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엔진이 차가워지면 연료 효율이 떨어지므로 불필요하게 짧은 주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한다. 평소에 타이어 공기압을 비롯한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실려 있는 집 중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리해서 무게를 줄이는 것도 의외로 도움이된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로 차를 바꾸는 것도 친환경 실천이니 올해는 동참해보는 것이 어떨까.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 타임

추석 명절에 읽기 좋은 추천 도서

휘영청 밝은 달처럼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추석이 다가왔다. 가족과 삶의 소중함을 되새겨볼 수 있는 책과 함께 마음의 풍요를 더해보면 어떨까?





가족 공부

최광현 | EBS BOOKS

30년 넘게 가족 상담 전문가로 활동한 최광현 교수가 다채로운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독자의 눈높이에 맞게 소개한다. 시대마다 달라지는 가족의 풍경을 차분하게 짚어내며 우리가 외면해 온 가족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파헤쳐본다.





뜻밖의 것의 단순한 아름다움

마르셀로 글레이서 | 지와사랑

이론 물리학자인 마르셀로 글레이서가 세계 각지에서 낚시를 하며 느낀 생명, 우주에 관한 명상록이다. 과학 이론과 개념, 용어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풍부하게 표현해 독자를 지식의 세계로 안내한다.





시어머니 유품정리

가키야 미우 | 문예춘추사

시어머니와 친어머니가 남긴 두 개의 일기. 소설의 주인공 모토코는 두 개의 일기를 통해 완전히 다른 삶을 살다 간 것처럼 여겼던 '두 어머니'의 가려진 진솔한 삶의 면모를 마주한다. 떠난 사람과 남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단절된 현대사회에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

도마퀴끄

QUIZ

산재근로자가 직업훈련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지원 정책은?

① K-하이테크 플랫폼

② 고용영향평가제도

③ 근로자 문화예술제

④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 9월 20일까지 정답과 이름, 주소, 연락처를 리:스펙 제대군인 담당자 이메일(seung29@korea.kr)로 보내 주시거나 웹진(http://vnet-magazine.kr)에서 직접 참여해 주세요(당첨 결과 문자 통지)

2024년 8월호 독자퀴즈 당첨자

강보회(대구 동구), 강선모(경북 김천), 김건수(경남 통영), 조성순(대구 동구), 최윤정(강원 속초)

※ 당첨되신 분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3만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 8월호 정답 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